

'3퇴'와 평안

제 328기 2018년 8월 2일

2018년 7월 28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1,077만 명

캐나다 토론토 파룬궁 수련생 대행진, 대륙인 '3퇴'

[명혜망]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진(眞), 선(善), 인(忍)'을 믿는 파룬궁(파룬따파) 수련 단체를 상대로 발동한 박해는 지금까지 줄곧 계속되고 있다. 2018년 7월 20일, 토론토 파룬궁 수련생들은 대형 행진, 집회와 촛불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중공이 파룬궁을 상대로 19년 동안 자행하고 있는 잔인한 박해에 항의하고,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자를 추모했으며, 박해를 공동으로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행진 대오가 시청 광장을 출발하자 거리의 수많은 사람은 잇달아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다. 한 관람객은 감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좋은 단체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박해를 받느냐고 물었다. 한 관람객은 눈물을 흘리면서 파룬궁 수련생이 이런 잔인한 박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면 정말 그들을 돋고 싶다고 말했다. '3퇴(퇴당, 퇴단, 퇴대)'한 화인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륙 의사가 하늘을 향해 '3퇴'를 선언하다

쓰촨 충칭에서 온 왕 씨는 자신이 국내에서 의사라며 말했다. "나는 공산당의 사악함을 여러분(파룬궁 수련생)보다 잘 압니다."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3퇴'의 중요성을 끈기 있게 알려 주자 그는 '3퇴'가 정말로 향후 자신의 생사존망과 관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머리를 꾋꼿이 세우고 영어로 한 단락을 말한 다음 다시 중국어로 말했다. "나는 지금 하늘을 향해 맹세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공산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애초에 (중공이라는) 사당 조직에 가입할 때 했던 맹세를 모두 폐기합니다!"

기독교도가 '3퇴' 후 모자를 벗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경의를 표하다

베이징에서 온 우 씨는 기독교도였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 진상과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한다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3퇴'에 동의했다. 그는 또 모자를 벗어 가슴에 올린 채 파룬궁 수련생을 향해 허리를 90도로鞠躬하여 인사를 한 후에 말했다. "모든 파룬궁 수련생께 저의 경의를 전해 주십시오!"



토론토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3퇴' 후 파룬궁에 감사드립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리 씨는 파룬궁 수련생이 말해준 '3퇴'의 의미를 들은 후에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파룬궁 진상을 듣고도 '3퇴'를 안했는데, 오늘 탈퇴하겠습니다. 파룬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륙의 친척 방문자가 파룬궁 연공장을 찾다

대륙 동북에서 온 우 씨는 행진을 관람한 후 파룬궁 수련생에게 연공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파룬궁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말했다. "지금의 중국 대륙은 온통 탐관오리 천하이고, 저처럼 저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실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멸망하지 않으면 중국에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중공,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장기적출 지속>

[명혜망] 2018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 까지 제27차 세계 장기이식 대회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정식 회의 첫날인 7월 2일 오전, 중공 강제 장기적출 연구센터(COHRC)는 <중공,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장기적출 지속>이라는 제목의 341페이지에 달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년 최신 보고서에는 2015년 중공이 사형수의 장기를 국민이 기증한 장기로 대체한 이후의 최신 정보, 정부와 산업체의 정책 법규와 성명, 중국 장기 기증과 이식 계통의 활동, 각지의 실제 기증 이력과 현황, 그리고 병원 수백 곳의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발굴,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장기 기증 시스템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0년 이후 몇 년 안에 세계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가 되었다.

2006년 강제 장기이식이 폭로된 후에도 장기이식 규모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년 10,000~15,000건이라는 정부의 이식 통계는 과소평가된 것이 분명하며, 겨우 몇 곳의 이식병원조차 이를 초과한다.

2015년 중공은 사형수 장기 채집을 이미 중지하고, 국민이 스스로 기증한 장기로 완전히 대체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최신 증거는 중국의 장기 기증 시스템이 단지 빙つか 데기에 불과하며, 이식 규모가 계속 증가해 기증했다는 장기 수량을 한참 초과했고, 거대한 중국 장기이식 산업을 지탱하는 장기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양심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외의 중국행 장기이식 여행은 변함없이 번창하고 있다. 중공은 아시아에서 '일대 일로'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 장기

공유 협의를 확대해 국제사회 전체를 강제 장기적출 죄악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기는 주로 양심수에게서 나왔고, 대부분 파룬궁 수련생이며, 위구르인, 티베트인과 기독교도가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가 7월 2일 COHRC 최신 보고 발표회에서 2016년 조사보고서의 결론을 소개하면서 중공이 이식에 쓴 장기의 출처를 폭로했다.

국제 의학윤리 권위자이며, 뉴욕 대학 의학원 윤리계 주임인 아서 카플란(Arthur L. Caplan) 교수는 이 보고서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훌륭하고 전면적이며,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보고서가 밝히듯이 중공은 여전히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으며, 도덕의 한계선을 넘는 방식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장기를 약탈해 이식을 진행하고 있다."

진상을 알고 '3퇴'해 우울증이 사라지다

[대륙 투고] 나의 사촌 제수는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토국에서 일한다. 2014년 봄에 그녀는 예쁜 딸을 낳았다. 아이의 출생은 가족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지만, 얼마 후 가족들은 우울과 침울에 빠졌고, 사촌 제수는 산후우울증을 얻었다.

사촌 제수는 양의사, 중의사, 심리과 의사를 만났고, 현에서 고치지 못해 시내의 유명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심지어 일부 민간 처방까지 동원하며 반년 동안 돈을 적지 않게 썼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그녀는 온종일 울적해 잠을 자지 못하고,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의심이 많아지고, 점점 초췌해져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친정과 시댁 사이도 골이 깊어져 젊은 부부가 거의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소식을 듣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챙겨 그녀를 찾아갔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XX, 제수씨가 이렇게 된 걸 보니 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한테 큰 효과가 있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바로 늘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편싼련 하오(真善忍好)’를 외우는 거예요. 파룬따파(파룬궁)는 불법(佛法)이고, 강대한 위력이 있어요. 제수씨가 늘 외우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되고, 소리를 내서 외우면 더 좋지만, 진심으로 정성껏 외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수씨의 병이 아주 빨리 좋아질 거예요.”

[인심이 깨어나다] “백성이 모두 공산당을 미워하면서 기회를 살핀다.”

[산둥 투고] 어느 직장에서 두 아저씨가 벤치에 앉아 잡담을 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그들에게 물었다. “아저씨들,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벤치의 남쪽에 앉은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몰라요.”

북쪽에 앉은 아저씨가 말했다. “백성들이 모두 공산당을 미워하면서 마음속으로 기회만 엿보고 있잖아요! 19대에서 이 당, 저 당, 당제를 한다고 했는데, 모두 겉치레고, 여전히 모두 공산당이 결정하지 않겠어요? 일당독재는 좋아질 수 없어요! 좋은 사람은 재난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 환영받지. 장쩌민이 자는 끌어내서 요절을 내야 해요. 단칼에…!”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은 대중 아닌가? 이 자가 권력을 쥐고부터 중국을 모두 망쳤어요. 지금 공산당 속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공산당 속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쪽에 앉은 나이 많은 아저씨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당원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내가 말했다. “공산당 속에는 아직 여러분 같은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3퇴’해서 평안을 보전할 사람을 골라내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래요.”

내가 이어서 말했다. “공산당이 부패한 걸 모두 아는 건 한 부분이에요. 제일 큰 건 사람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공산당은 평화 시기에 지주를 죽이고, 자본가를 죽이고, 우파를 죽이고, ‘반혁명분자’를 죽이고, ‘아홉 번째 냄새나는 놈’을 죽이고, ‘주자파’를 죽였어요. ‘공씨네 차남을 타도’했는데, 다행히 공자가 2천 년 전에 죽었기 망정이

나는 그녀가 미심쩍어하는 것 같아 계속해서 말했다. “파룬따파는 ‘진, 선, 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병을 고쳐 건강해지는 데에 신기한 효과가 있어요. ‘천안문 분신자살’은 완전히 장쩌민 패거리가 파룬궁을 모함하려고 만든 속임수인데, 파룬궁을 증오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거예요. 중공은 정권을 찬탈한 이후 각종 운동으로 중국 동포 8천만을 살해했어요. 특히 무고하고 선량한 파룬궁 단체를 10여 년 동안 잔인하게 박해했어요. 중공이 부정부패로 덮인 데다 불법을 박해하고 좋은 사람을 박해해 정말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노하게 됐는데, 이런 정당이 그래도 계속 존재해 나갈 수 있겠어요? 선악에 보응이 있는 건 하늘의 뜻이에요! 불법과 불법 수련인을 박해한 죄는 크기로 끝이 없어서 천벌을 받게 됐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중국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영원히 재난을 벗어나고 평안을 보전할 수 있어요.” 사촌 제수가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얼굴에 점점 웃음기가 돌고, 우울한 기색이 사라지더니 ‘3퇴(퇴당, 퇴단, 퇴대)’에 동의했다.

20여 일 후에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전의 우울한 안색이 말끔히 없어지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완연했다. 가정은 다시 화목해졌고, 그녀는 다시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왜 ‘3퇴’하는가?

중공은 정권수립 이후 끊임없이 운동을 일으켜 중국인 8천만 명을 살해했고, 지금은 또 ‘진, 선, 인’을 믿는 파룬궁 수련생을 잔인하게 박해하는가하면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 팔아 돈을 벌고 있다. 중공의 죄악은 이미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하늘이 다스리는’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인은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할 때 모두 자신의 일생을 공산당에 바치고, 공산당을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겠다는 독한 맹세를 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독한 맹세다. 그 뜻은 당신이 자원해서 생명을 공산당에 바치고, 공산당의 한 분자임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사무치는 중공의 죄악을 당신도 한 몇 감당하게 되므로 천벌을 피할 수 없다. 오직 ‘3퇴(퇴당, 퇴단, 퇴대)’ 성명을 해야만 중공의 죄행과 악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옛 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순응하는 자가 번역한다.”고 했으니, 고귀한 중국 동포들이 빨리 ‘3퇴’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희망할 따름이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 살아 있었으면 벌써 공산당 손에 죽었을 거예요. 1989년에 국 학생을 학살했고, 1999년에는 ‘진, 선, 인’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어요. 중공은 집권한지 70년도 안 돼서 중국인 8천만을 살해했어요.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려요. 공산당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반드시 자멸할 거예요.”

북쪽에 앉은 아저씨가 말했다. “내가 20년 전, 라이시에서 소석회 사업을 할 때 대만에서 친척을 만나러 온 사람을 알았는데, 당시에 대만 농민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91세 된 우리 어머니는 중풍으로 누워 있었는데, 장쩌민이 그래도 인두세, 특산세, 토지세를 물리게 했어요. 지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 농약, 화학비료, 뭐든 값이 올라서 어차피 백성들한테는 좋을 게 없어요. 결국에는 병을 얻어서 몇 푼 모은 걸 모두 공산당 병원에 갖다 줬어요. 지금 중국인은 버티다 죽고, 굶다 죽는데, 너무나 불공평해요! 그 탐관들은 횡령한 돈을 모두 외국으로 빼돌리고 처자식을 보내 누리게 하죠. 현재 중국 백성들은 모두 공산당의 노예라, 늙으면 (백성의) 세금으로 거둔 돈 몇 푼을 주면서 공산당한테 감지덕지하게 하는데, 공산당이 백성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죠.”

남쪽에 앉은 아저씨가 아주 감탄스러운 눈빛으로 북쪽에 앉은 아저씨를 쳐다봤다. 그는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한다.’는 도리를 이해하고 아주 기쁘게 ‘3퇴’에 동의했다. 그는 내가 준 ‘파룬따파 하오, 편싼련 하오’ 호신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